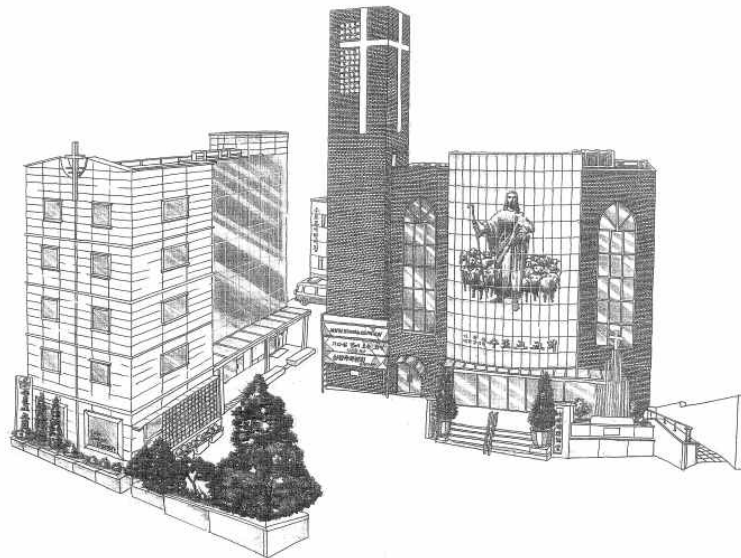


2023년 제15회 수표교포럼

다민족 · 다문화 · 이민국가 이행과 한국교회의 변화방향



일시: 2023년 10월 29일(주일) 오후 4시

장소: 수표교교회 예루살렘(유튜브 중계)

주최: 수표교교회

주관: 수표교포럼위원회

후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수표교교회

초 대 합 니 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표교포럼은 2007년 수표교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 위기와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외침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와 사회를 읽어내는 소명감’, ‘철저한 회개에 기반을 둔 영적 각성’,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통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메시지는 그동안 수표교 포럼에서 확인한 우리 신앙의 향기이자 믿음의 전통이었습니다.

올해 수표교포럼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2021년 시니어 세대, 2022년 미래 세대에 대한 논의에 이어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는 시대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외국인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논의가 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시점에서 교회 역시 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존하는 공장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민자들의 유입이 계속되어 이주민의 숫자는 200만명이 넘었습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유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만큼 다문화 가정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문화적인 동질성을 강조하는 사회분 위기는 다양한 갈등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가 이주민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그네인 이주민들을 사랑하고 대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이고, 역파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주민들이 늘어나는 이 때에 현장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하신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소중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수표교교회

2023년 10월

담임목사 김진홍 드림

“다민족 · 다문화 · 이민국가 이행과 한국교회의 변화방향”

프로그램

● 개회사

- 김진홍 목사 (수표교교회 담임)
- 채성기 목사 (오류동교회, 서울남연회 감독)

● 주제발표와 토론

- 사회: 한동구 목사 (수표교교회 소속목사, 평택대학교 명예교수)
- 주제발표 1: 다민족·다문화·이민사회, 한국교회와 사회적 과제
 - 한국교회의 이주외국인 선교 현황과 방향김봉구 목사 (대전 외국인복지관 관장, 살림감리교회)
- 주제발표 2: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책임
 - 홍주민 목사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신학박사, (사) 한국디아코니아 대표)
- 특 송: 수표교교회 아랍선교위원회
- 지정논찬:
 - 이승현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장)
 - 박천응 목사 (안산 국경없는 마을 이사장)
 - 매튜 선교사 (수표교교회 국내 이주민 선교 담당)
- 자유토론
- 감사 말씀/광고
 - 강대중 권사 (수표교포럼위원회 위원장)
- 강평/축도
 - 김진홍 목사 (수표교교회 담임)

“다민족 · 다문화 · 이민국가 이행과 한국교회의 변화방향”

목 차

[발제] 한국교회의 이주외국인 선교 현황과 방향(김봉구 목사)	4
[발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책임(홍주민 목사) ...	29
[논찬] 이승현 목사	37
[논찬] 박천응 목사	39
[논찬] 매튜 선교사	42

주제발표1

“다민족·다문화·이민사회, 한국교회와 사회적 과제”

-한국교회의 이주외국인 선교 현황과 방향

김봉구 목사(대전 외국인복지관 관장·살림감리교회)

창립 116주년을 맞는 서울 수표교교회는 독립운동가 김영학 목사님, 신석구 목사님 등이 시무하셨던 유서깊은 교회로 대형교회보다 모범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감리교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홍 담임목사님과 수표교포럼을 이끌고 계시는 강대중 교수님, 이재열 교수님의 초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를 맡은 김봉구 목사입니다. 저는 2002년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감리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감리회 전통을 이어 가고자 대전에 살림교회를 개척하면서 외국인노동자센터와 쉼터를 함께 설립해 ‘23년 현재까지 21년째 외국인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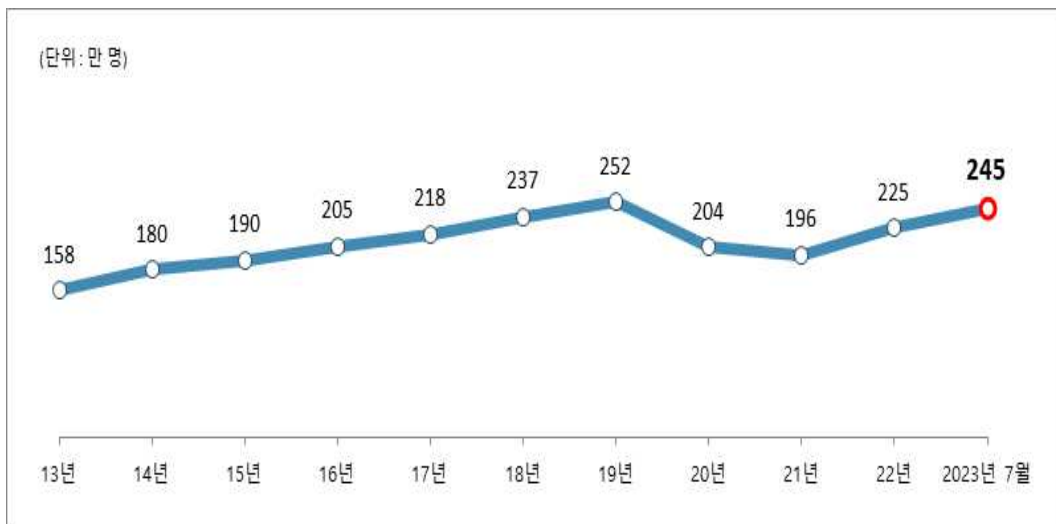
I. 국내 외국인주민 현황 및 사역

2002년 당시 재한 외국인은 50만명 가량였고, 20년이 지난 2023년 현재는 인구대비 5%인 250만명까지 증가했습니다. 20년간 5배 증가한 것으로 향후 500만명까지 증가하는 것은 시간문제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구 대비 유입 외국인이 10% 정도면 다문화국가 또는 이민국가라고 부릅니다. 현재 한국은 이주민 5% 다문화사회에서 10% 다문화국가로 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법무부의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2,367,607명, 2019년 2,524,656명까지 증가했다가 코로나 이후인 2021년 1,956,781명까지 감소했다가 2022년 다시 2,245,912명, 2023년 7월 2,453,572명까지 증가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법무부 통계월보 체류외국인 현황



○ 체류외국인 연도별 현황

연도	총 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소 계	등 록	거소신고 ¹²⁾	
2013년	1,576,034	1,219,192	985,923	233,269	356,842
2014년	1,797,618	1,377,945	1,091,531	286,414	419,673
2015년	1,899,519	1,467,873	1,143,087	324,786	431,646
2016년	2,049,441	1,530,539	1,161,677	368,862	518,902
2017년	2,180,498	1,583,099	1,171,762	411,337	597,399
2018년	2,367,607	1,687,733	1,246,626	441,107	679,874
2019년	2,524,656	1,731,803	1,271,807	459,996	792,853
2020년	2,036,075	1,610,323	1,145,540	464,783	425,752
2021년	1,956,781	1,569,836	1,093,891	475,945	386,945
2022년	2,245,912	1,688,855	1,189,585	499,270	557,057
2023년 7월	2,453,572	1,801,477	1,282,639	518,838	652,095

(단위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중국	1,070,566	1,101,782	894,906	840,193	849,804
베트남	196,633	224,518	211,243	208,740	235,007
태국	197,764	209,909	181,386	171,800	201,681
미국	151,018	156,982	145,580	140,672	156,562
우즈베키스탄	68,433	75,320	65,205	66,677	79,136
필리핀	60,139	62,398	49,800	46,871	57,452
일본	60,878	86,196	26,515	28,093	46,741
기타	562,176	607,551	461,440	453,735	619,529

■ 체류외국인 출신 국가는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일본 순으로 많습니다.

2002년 살림교회, 외노센터와 쉼터를 동시에 설립한 이후 외국인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다보니 2005년 외국인 무료진료소, 2008년 이주여성인권센터, 2009년 다문화어린이도서관, 2012년 다문화 레스토랑 I'mAsia, 대전 외국인복지관, (사)러브아시아, (사)러브아시아 필리핀지부·태국지부, 필리핀 한국어센터 등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4명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로 시작한 “대전충청 외국인 무료진료소” 의료진은 현재 500명이 넘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진료를 합니다.

교회로 비유하면 100배 이상의 부흥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 체류자격별·연도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2023년 6월 통계월보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년 1~6월	전년 대비
총 계	17,880,503	2,659,845	1,044,545	3,390,009	4,638,985	427%
사증면제(B-1)	2,053,173	222,306	19,938	663,699	773,187	545%
관광통과(B-2)	7,158,538	939,748	115,029	945,123	2,014,042	1,180%
단기방문(C-3)	5,184,417	503,028	89,288	439,865	656,605	803%
단기취업(C-4)	24,507	12,750	18,193	21,451	11,449	32%
유 학(D-2)	291,007	89,414	53,366	111,101	106,076	176%
일반연수(D-4)	84,653	29,048	26,718	41,094	29,477	76%
상사주재(D-7)	9,072	2,045	1,044	2,539	2,388	169%
기업투자(D-8)	42,442	9,252	4,574	13,009	13,380	195%
무역경영(D-9)	8,669	3,169	2,562	3,418	2,654	79%
교 수(E-1)	6,904	2,061	964	2,460	1,886	122%
회화지도(E-2)	29,115	11,326	5,376	11,868	9,918	124%
연 구(E-3)	9,212	2,569	1,618	4,346	3,146	108%
기술지도(E-4)	1,577	444	233	500	414	96%
예술홍행(E-6)	5,436	1,790	1,934	3,816	3,377	173%
특정활동(E-7)	46,475	12,398	5,827	20,099	21,649	214%
계절근로(E-8)	0	0	565	9,051	17,163	299%
비전문취업(E-9)	151,116	41,992	16,732	135,167	88,758	104%
선원취업(E-10)	11,634	6,325	4,895	9,329	6,799	21%
방문동거(F-1)	97,159	32,329	11,306	46,485	42,254	129%
거 주(F-2)	58,425	13,330	3,637	12,238	17,233	378%
동 반(F-3)	40,284	13,651	9,254	21,388	15,519	114%
재외동포(F-4)	579,522	112,752	64,246	123,610	157,636	280%
영 주(F-5)	177,531	34,140	11,644	24,322	51,681	665%
결혼이민(F-6)	159,499	46,119	15,504	66,847	70,511	251%
방문취업(H-2)	250,655	58,992	53,799	29,480	32,841	222%
기 타	1,399,481	458,867	506,299	627,704	488,942	73%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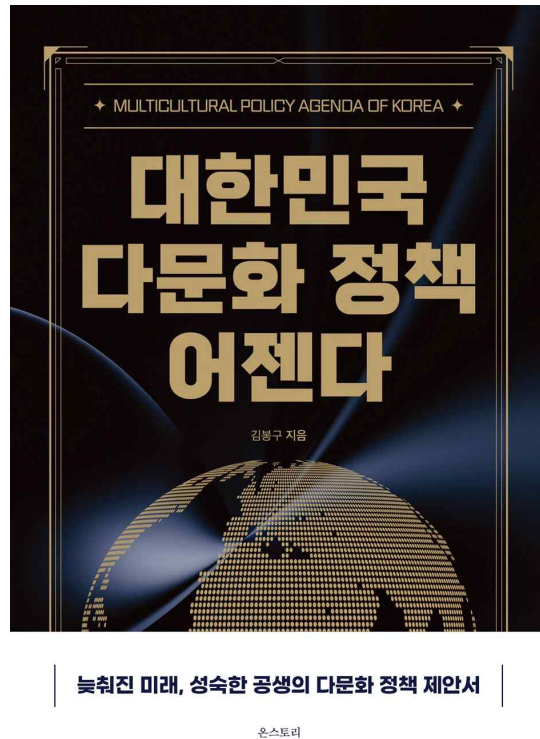
저는 늘 외국인들은 땅 끝에서 온 감추인 보화요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의료진은 교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구조로 봉사 희망자가 많아 한의사나 약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4대보험 의무화가 된 지 20년이 됐지만 장시간 근무와 휴일 의료기관 휴업으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의료서비스는 정부지원없는 민간단체에 와서 받는 이상한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어 아직도 무료진료소를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더라도 정부의 외국인정책이 얼마나 영성하고 허술하며 빈틈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 열거하면 책 한권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있어서 2015년 「다문화 현장 이야기」 라는 책에 이런 문제점들을 담았고, 2023년 「대한민국 다문화정책 어젠다」 라는 책은 대안을 중심으로 출간했습니다.



연말연시쯤 「지역소멸·외국인주민정책·이민정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국인복지관의 다양한 봉사자들은 교인이든 타 종교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공간을 이용하는 외국인들 역시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것 뿐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를 돕습니까?” “왜 무료로 진료를 해 주죠? 왜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죠? 왜 무료로 추석한마당 잔치를 베풀고, 선물도 주고 풍성한 뷔페 음식도 차려주는 겁니까?”

왜? 처음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고? 뭐라고 대답을 하지?

이들은 현지 국가에서 누구를 도와 준 적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은 적도 없는 문화권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돈을 벌고 비자가 만료돼 돌아갈 때에 이들은 한국에서 이런 문화를 배우고 깨닫고 귀국하게 됩니다. 한국의 정을 나누는 문화, 또는 교통질서, 자원봉사, NGO,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등등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베푼 친절과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감사인사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세요”

처음에 저에게 “왜 호의를 베푸냐”라고 묻던 이분들이 귀국할 때는 그 답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요, 한국교회가 이주민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과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세계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고, 통전적인 해외선교를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II. 한국교회(감리교회) 현황과 선교과제

1. 한국교회가 현재 250만명의 땅 끝에서 온 이방 나그네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각 교단의 이주민 선교대응은 성결교는 다문화선교위원회, 기장은 이주민선교협의회, 예장은 인권선교협의회, 성공회는 이주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감리교회도 2015년 선교국에 이주민 선교회를 조직하고, 50여개의 교회와 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 주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로운 선교를 하고 있는가? 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지금까지의 고전적인 선교방식이 과연 지혜로운 선교방식인가?

저는 단연코 NO라고 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C.T. Studd에 의해 1913년 창립된 WEC 세계선교회 한국소속 선교사 지망자들이 여러번 저희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강의 한 내용도 ‘뱀처럼 지혜로운 선교와 그 방안’으로 한국의 입·출국 외국인과의 접촉하는 새로운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3. 기독교 교세도 축소사회처럼 감소 추세에서 해외 자비량 선교 모델, 즉 대안적인 선교 비전을 갖고 있는가? 입니다.

“한국교회 미래지도”를 10년 전 출간한 미래학자 함동측의 최윤식 목사님은 당시 한국교회는 여러 사회 요인으로 인해 반에 반토막, 즉 1천만명의 교인이 250만명까지 감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감리교회 교세도 15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감소하고 있어 본부에서는 서울연회와 남연회, 경기연회와 중앙연회, 동부연회와 충북연회, 남부연회와 충청연회, 삼남연회와 호남연회를 통합하겠다는 등 축소교회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감소 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1998년 1,329,437명, 2003년 1,417,213, 2006년 1,507,994명을 돌파했고, 2010년 1,587,385명 최대치를 기록했고, 교인 150만명 대가 2013년까지 유지하다가 2014년부터 140만명 대로 줄면서 지금까지 감소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2022년까지 40만명 가량이 감소한 것입니다. 해마다 3만3천여명씩 감소한 셈입니다.

5년마다 발표하는 문체부의 2018년 한국 종교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가 9,675,76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1천만명이 무너졌고, 예장 통합이 2,789,102명, 예장 합동이 2,764,428명, 예장 백석대신이 1,403,273명, 감리회는 1,334,178명 이었습니다.

대순진리회 163만명, 창가학회 159만명, 국제도덕협회 일관도 130만명, 원불교 123만명 있습니다.

연회 구분	서 울	서울남	중 부	경 기	중 앙	동 부	충 북	남 부	충 청	삼 남	호남특별	미주자치	합 계
지 방 수	13	18	31	29	21	24	14	24	23	15	8	11	231
교 회 수	390	413	1,088	791	612	695	409	633	659	437	273	259	6,659
입 교 인	82,829	104,392	157,954	79,815	59,816	61,520	24,098	56,873	56,574	24,532	12,681	8,334	729,418
세 레 인	5,987	12,371	26,085	10,869	5,194	4,535	2,223	7,683	4,945	2,691	1,107	767	84,457
세레 아동	7,424	8,818	17,095	10,251	5,566	5,089	1,913	5,293	4,664	2,460	1,111	813	70,497
원입인(성인)	76,183	63,253	34,236	14,216	6,484	10,907	3,407	23,120	9,265	4,022	1,226	957	247,276
원입인(아동)	8,780	7,453	15,000	9,240	7,955	4,812	2,379	5,981	5,806	3,012	1,155	708	72,281
교 인 수	181,203	196,287	250,370	124,391	85,015	86,863	34,020	98,950	81,254	36,717	17,280	11,474	1,203,824
정 회 원	759	675	1,783	1,122	795	813 (국외57)	442	865	741	459	282	333	9,069
준 회 원	54	58	98	66	34	19 (국외2)	21	63	42	19	6	20	500
담임서리	3	4	11	13	3	4	5	13	5	10	4	0	75
수련서리 (기원,교육,성교사포함)	48	30	36	32	20	7	7	18	12	1	0	0	211
협동회원		1	7	0	0	(국외1)	0	2	0	2	1	1	15
원로목사	215	185	268	170	129	130 (국외2)	69	137	199	77	30	39	1,648
국외거주	106	142	16	82	90	62	22	18	41	29	1	1	610
교역자수	1,185	1,095	2,219	1,485	1,071	1,035	591	1,116	1,042	597	324	394	12,154
총 수 입 (특별회계포함)	151,677,333,672	121,236,888,004	280,838,336,271	148,556,242,782	140,035,082,359	105,196,737,846	50,801,087,004	94,094,936,508	86,798,032,833	48,374,423,919	28,941,604,024	\$115,549,881.00	1,241,422,057,172+ \$115,549,881.00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인수	1,468,438	1,397,918	1,394,492	1,334,178	1,297,924	1,302,968	1,246,239	1,203,824
변동율	-1.2% (-17,759)	-5.0% (-70,524)	-0.2% (-3,426)	-4.5% (-60,314)	-3.7% (-36,254)	0.3% (5,044)	-4.4% (-56,729)	-3.4% (-42,415)
교회수	6,474	6,657	6,721	6,710	6,695	6,660	6,652	6,659
변동율	-0.7% (-44)	2.7% (183)	1% (64)	-0.2% (-11)	-0.2% (-15)	-0.5% (-35)	-0.1% (-8)	0.1% (7)
교역자수	9,440	9,602	9,840	9,888	9,949	9,784	10,023	10,506
변동율	0.5% (44)	1.7% (162)	2.4% (238)	0.5% (48)	0.6% (61)	-1.7% (-165)	2.4% (239)	4.8% (483)

■기독교대한감리회 2022년도 교세 현황

이 보고서에서 15세-39세를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에 대한 질문에 1위 재산과 경제력 27.8%, 2위 화목한 가정 26.4%, 3위 건강 14.2%, 종교생활은 0.7% 9위로 최 하위였습니다. 행복한 삶에 15세-39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종교의 의미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윤식 박사님은 10년 전부터 교세가 감소하면 한국교회는 재정 여력이 없어 가장 먼저 해외선교비를 줄이고, 해외 선교사들을 불러 들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분의 대안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 감소세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4.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 「대한민국 다문화정책 어젠다」에도 실은 내용입니다만 축소교회에 맞는 해외 자비량 선교가 가능한 모델은 이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으로 입국 전 한국어교육 등 현지 국가에서 사전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적금조합 교육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KMC 파송 선교사 현황 (2023년)

23-06-30 기준											
구분	나라명	가정	인원	구분	나라명	가정	인원	구분	나라명	가정	인원
동북아시아	대만	17	30	서유럽	불가리아	2	4	아프리카	모잠비크	5	10
	몽골	18	29		조지아	4	6		에스와티니	1	2
	일본	51	88		계	27	48		말라위	3	5
	중국	77	135		영국	1	1		세네갈	2	4
	한국(국내아주인(선교사))	2	2		프랑스	1	2		토고	2	4
	계	165	284		계	2	3		가나	1	2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34	65	북미	미국	11	21		코트디부아르	1	2
	싱가포르	5	9		캐나다	3	6		마다가스카르	3	4
	인도네시아	28	49		계	14	27		시에라리온	1	1
	필리핀	72	129		멕시코	5	10		부르키나파소	1	2
	계	139	252		과테말라	3	5		짐바브웨	1	1
인도차이나	태국	45	84	중남미	니카라과	2	3		계	71	122
	캄보디아	39	70		도미니카공화국	3	4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이스라엘	2	4
	베트남	14	28		쿠바	4	8		튀르키예	11	18
	미얀마	13	22		에콰도르	3	6		모리타니아	1	1
	라오스	21	37		파라과이	4	7		모로코	2	3
	계	132	241		아르헨티나	1	2		요르단	4	6
서남아시아	네팔	25	42		페루	2	3		레바논	1	2
	방글라데시	9	14		칠레	1	2		아랍에미리트	1	2
	스리랑카	16	28		브라질	2	3		오만	1	2
	인도	33	57		볼리비아	2	3		튀니지	1	2
	파키스탄	6	12		계	32	56		이집트	4	7
	계	89	153		에티오피아	1	1		계	28	47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	-	아프리카	남수단	1	2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2	3
	카자흐스탄	8	16		케냐	11	20		솔로몬군도	1	2
	키르기스스탄	9	16		탄자니아	11	16		호주	9	15
	타지키스탄	3	5		우간다	4	7		피지	3	6
	계	20	37		르완다	3	5		사이판	1	2
러시아 및 동유럽	러시아	13	24		브룬디	1	2		괌	1	2
	루마니아	4	6		잠비아	4	7		계	16	30
	아르메니아	1	2		남아프리카공화국	13	23	총계		735	1,300
	헝가리	1	2		레소토	1	2	12지역 / 82개국 / 735가정 / 1,300명			
	우크라이나	2	4		나미비아	-	-				

■ 2023년 감리교회 해외 파송 선교사는 104개 국가에 735명



■ 안산명성감리교회(김홍선 목사) 자녀출산 캠페인

이주노동자들이 월급 중 일부를 적금으로 적립해 향후 적금조합에서 공동사업을 통한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만들어 내는 모델로 향후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기업들의 해외사회공헌과 협력하는 정부 차원의 큰 틀의 해외원조사업과 해외선교사업이 만날 수 있습니다.

민선,관선 대전광역시장을 세 번 하시고, 지난 정부 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부총리급)을 역임하셨던 분에게 이 제안을 드렸더니 본인은 엄두가 나지않는 큰 프로젝트로 대통령 5대공약 정도로 추진해야 할 큰 사업 같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일본 것을 모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만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ODA 규모는 우리의 5배 이상이고 경제력으로 따져도 한국의 2배 이상의 ODA 예산이고, 미국과 일본이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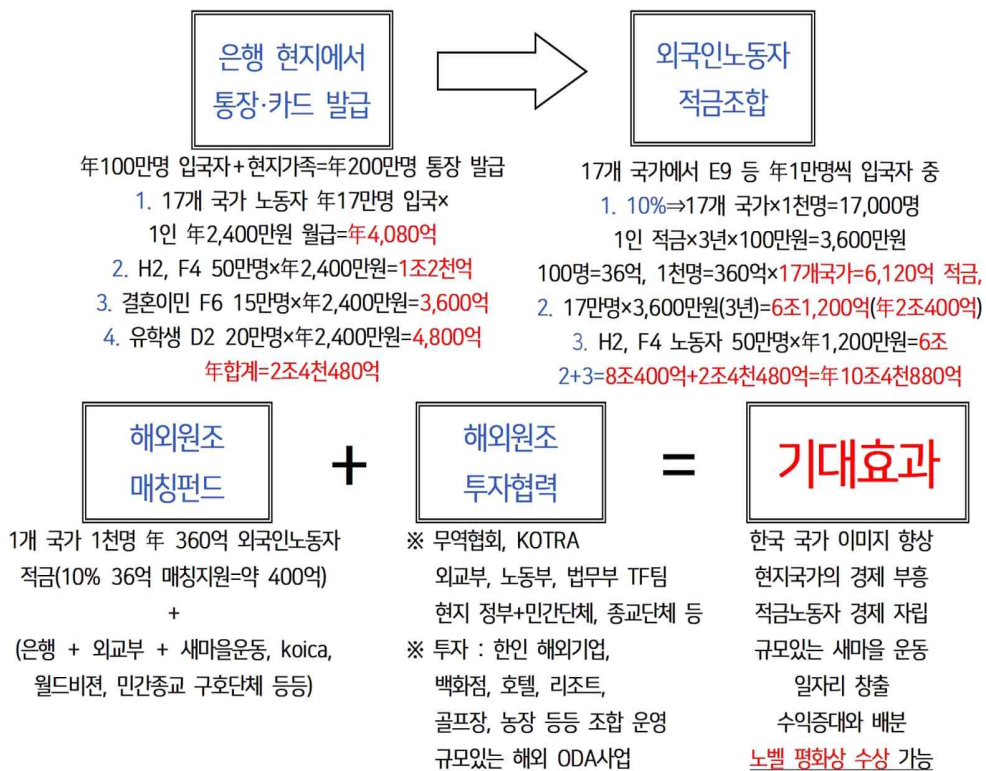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안은 늘 일본을 벤치마킹하는데 머물러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은 기간 가까운 아시아 해외원조를 통해 원활한 원자재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출시장을 확보해 왔습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선 일본것을 카피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종합전략의 부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다 할 묘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효과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서는 해마다 한국 노동부와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16개 국가에서 25만명씩 들어오고 나가는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일본이 갖고 있지 못한 한국의 강점은 바로 이 16개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과 협력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이 미래성장 동력의 하나요, 일본보다 적은 ODA 예산으로도 국제개발사업에서 일본을 앞서고 아시아 국가들과 상생하는 길입니다. 이 일을 위해 창구 단일화를 위한 세계평화부(인구 이민부) 신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해외 선교사나 현지 한인교회를 통해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5. 다문화선교 활성화 방안

1) 감리회 이주민선교위원회 활성화

본부와 선교국은 현재 유명무실한 이주민선교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문화관련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의 소통과 교류, 교육, 재생산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진행시켜야 합니다. 이미 국내선교사 제도를 도입했고, 사회선교사 제도 도입도 진행하고 있으나 제도만큼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국내외 융복합 선교방향을 잡고 통전적인 선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선교방식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2) 다문화선교위원회 설립

총회 산하의 다문화선교위원회를 구성해 본부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다문화선교 로드맵 구성, 다문화선교 관심유도 및 확대, 다문화사역단체 자매결연 후원, 인적물적자원 확보,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선교의 효율성 증대와 자비량 선교 방안 등을 꾀해야 합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앞으로 교회의 다문화선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3) 각 연회에 다문화선교위원회 구성

각 연회에 별도의 다문화선교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연회 산하나 사회평신도부 산하에 설치해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의 이주외국인선교 활성화를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주여성센터,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확대하는 상황에서 연회나 교회, 단체에서 정부의 위탁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이주민선교에 매우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사회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선교위원회는 남부연회에만 특별위원회로 조직되어 있고, 연간 4백만원의 소액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4) 다문화선교주일 제정을 통한 다문화사역 지원

5월은 가정의달로 아시아주일이 있고, 정부는 20일을 세계인의날, 그 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5월에 다문화선교주일을 제정해 교회가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다문화아동, 다문화가정, 난민 등 외국인주민들을 돌아보며 이들을 지원하는 교회와 관련단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는 12월 10일 UN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일,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성탄절과 연계해 다문화선교주일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5) 총회주일 또는 사회선교주일 제정

다문화선교주일 제정이 현실적으로 회의적이라면 총회주일 또는 사회선교주일을 제정해 사회선교와 다문화선교 교회와 단체들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4월 1주 부활절에 선교주일, 6월 2주 환경선교주일, 9월 4주 농촌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으나 사회선교주일, 인권주일, 다문화선교주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장합동은 총회주일에 세례교인 1인당 1만원 강제조항으로 연 50억원을 통합은 9월 1주를 총회주일로 지키며, 비강제로 연 15억원을 총회로 보내고 있는데 이 현금은 본부사업과 이웃을 돌보는 사회선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회주일에 본부는 공동예배문, 설교문, 기도문, 기도 제목을 각 교회에 배포하고 있고, 본부에서는 총회주일현금 외에 일체의 현금을 건지 않아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개교회 경상비 2.2% 연 90억원을 감리교회는 경상비 1% 연 75억원을 운영비와 사업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이나 통합의 제도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합동처럼 1년에 1회 총회주일을 제정해 대도시 세례교인 1인당 1만원, 지역교회는 5천원씩 현금을 의무화 해 2~3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회선교, 선교단체 사역지원 등에만 사용한다면 사회선교의 극대화, 사회적 여론형성, 사회영향력 확대 등의 큰 결실을 맺을수 있을 것입니다. 총회주일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6) 3개 신학대에 사회선교(다문화선교) 필수과목 설치

3개 신학대 학과목에 다문화선교를 포함한 사회선교 과목을 필수적으로 설치키 해 신학생들이 존 웨슬리의 사회참여 전통계승, 사회선교의 중요성과 관심, 사회선교기관 탐방, 해외탐방, 자원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과정 체험을 통해 Glocal 일꾼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7) 개 교회에서는 이주민들과의 접촉점을 넓혀야 합니다.

예배나 모임이 없는 시간에 교회 빈 공간을 한국어교실로 활용하고, 유휴 교인들을 한글 자원 봉사로 활용함으로 서로의 필요충분조건을 맞출 수 있고, 교회를 개방할수록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종교의 벽을 넘어 자연스럽게 교회를 경험하는 것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기에 외국인들과 접촉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기 행사때마다 다양한 국가 버전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미래세대들에게 Glocal을 경험하는 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절에 외국인 잔치, 지역 나들이(한국문화체험) 유학생 장학금, 이주여성 친정방문 지원, 다문화아동 외갓집 나들이 지원, 김장김치 나눔 등 1년 내내 다양한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비전트립도 교회에서 만나는 외국인들 고향이나 지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을 만날수록 해외선교 영역도 계속 확대됨으로 땅 끝 선교가 무엇인지를 온 교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IV. 대안-이민청 신설과 세계평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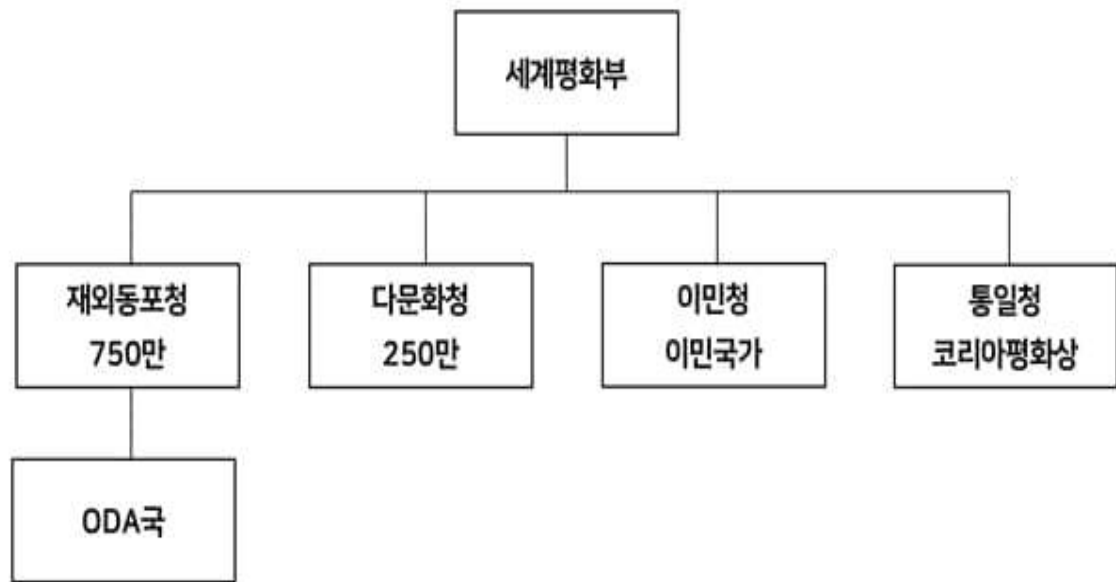
1. 제가 세계평화부(인구이민부)를 제안하면 늘 듣는 질문이 그런 부처가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입니다. 물론 세계평화부라는 명칭을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부는 이민국가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등의 국가에는 이미 있는 정부 부처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미얀마, 키르기스스탄에도 이민부가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 고독부를 신설했고, 일본도 2021년 고독부를 신설했습니다. 또 영국에는 국제개발부가 있는데 이처럼 인구이민부의 다른 이름 세계평화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민국가를 생각하면 현재의 윤석열 정부나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신설보다는 인구이민부 신설이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외국인주민 250만명,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는 입,출국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원은 2022년 12월 기준 행안부 통계에 의하면 2,698명입니다. 이것은 80만명의 외국인을 관리하는 홍콩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의 법무부는 홍콩에 비해 3배나 많은 외국인출입국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를 이민청으로 승격하는 것인데 향후 50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청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구이민부로 가기 위한 과도적인 이민청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설되는 이민청이 250만명의 외국인주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이민부! 더 정확히 국익을 위해서는 세계평화부를 신설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022년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을 승격시킨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립했습니다. 현 정부는 내년 총선 이후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방침이고, 150만 다문화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결국 법무부가 신설하겠다는 이민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승격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입니다.

250만 외국인주민 컨트롤타워는 이민청과 무관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750만 해외동포들과 유기적인 융복합 정책도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인구대비 10%인 이민국가 준비도 이민청이 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돌아돌아 제자리, 결국 이민청은 요란한 변죽만 올린 돌고돌아 제자리인 도토리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이민청이 신설되더라도 이민국가를 준비하거나 외국인주민 총괄부서인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렵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흘러 또다시 인구이민부 신설이 대두될 것이고, 그랜드 디자인이 없는 한 세계평화부는 논의조차 안 할 공산이 큼니다.

문제는 한국교회도 이런 인류보편의 가치인 평화, 성서의 평화사상을 민족 또는 국가 안에 가두고 있어 세계평화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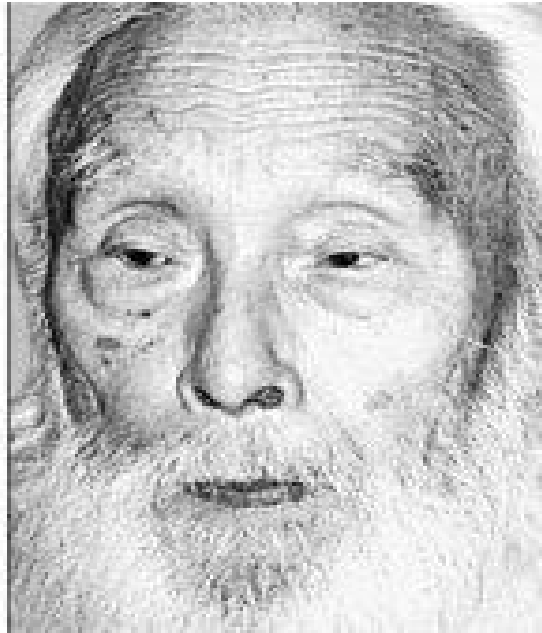
일찍이 다석 유영모와 씨알 함석헌 선생은 그의 생명과 평화사상에서 씨알(민중)이 국가의 주인인데 국가주의, 당파주의, 종파주의가 세계평화로 나아가는 방해물이라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우주생태평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체성으로 보고, 생명과 평화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을 반평화 반생명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세계구원은 나, 우리,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 갇아 두어서는 안되며, 우리만 천국에 간다는 것은 매우 교만한 생각으로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성서의 가르침대로 예수를 팔아먹은 가롯 유다조차 지옥에 갇아두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도 구원 받을 천국 씨알이요, 일제에서 해방된 조국도 자주독립국가로서 일본도 세계구원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게 진정한 평화로 씨알 함석헌 선생은 개인의 평화, 동북아 평화, 세계평화 더 나아가 우주평화까지 설파했다는 점은 그의 탄생 122주년을 맞은 2023년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이 크다 하겠습니다.

①-2-2-1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직렬별 현원 Current Number of General Service

(2022. 12. 31. 기준)

(단위 : 명)(Unit : Person)

구분 Classification	합계 Total	고위공무원 SCS	3급 GR3	4급 GR4	5급 GR5	6급 GR6	7급 GR7	8급 GR8	9급 GR9
계 Total	144,098	1,131	855	6,576	16,432	34,971	45,433	22,574	16,126
고위공무원 SCS	1,098	1,098							
부이사관 GR3	855		855						
행정직군 Administration Service Groups	104,443			4,849	11,720	25,801	32,262	17,126	12,685
서기관 GR4	4,672			4,672					
감사 Inspector	728			177	301	181	69		
검찰 Clerk for Public Prosecutor	6,170				477	1,612	2,120	1,144	817
관세 Customs Duty	3,941					1,058	1,309	806	768
교정 Correction	15,266				353	3,477	5,958	2,973	2,505
마약수사 Drug Investigation	277				20	77	90	64	26
방호 Security	1,247				1	23	556	376	291
보호 Probation	2,817				255	504	867	634	557
사서 Librarian	826				103	363	216	126	1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188				45	36	49	46	12
세무 Taxation	20,243					5,361	7,469	4,520	2,893
직업상담 Job Consultation	1,681					162	1,125	129	265
철도경찰 Railroad Security	514				7	142	209	107	49
출입국관리 Immigration	2,698				169	479	886	673	491
통계 Statistics	1,733				142	412	688	346	145
행정 Administration	41,442				9,847	11,914	10,651	5,182	3,848
기술직군 Technical Service Groups	33,639			1,727	4,712	8,823	9,638	5,301	3,438
기술서기관 Technical GR4	1,727			1,727					
간호 Nursing	1,351				25	462	397	467	
간호조무 Nursing Assistant	542					10	320	82	130
공업 Industry	5,551				1,230	1,433	1,511	692	685
기상 Meteorological	1,011				141	270	329	162	109
농업 Agricultural	2,033				312	591	610	395	125
방송무대 Broadcasting & Stage	232				21	93	84	26	8
방송통신 Broadcasting	1,849				367	648	432	233	169
방재안전 Disaster Management	157				40	41	47	23	6
보건 Health	1,074				157	234	296	183	204
수의 Veterinary	461				99	232	130		



■다석 유영모(1890~1981)와 씨알 함석헌(1901~1989)

2. 한국교회와 세계평화부(인구이민부)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매년 국내로 들어오는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은 100만명 가량으로 이들 아시아 20개 국가에 한국어교육센터를 각각 5개씩 총 100개를 세우는데 100억을 투자합니다.

베트남을 예로 든다면 하노이 하이퐁 나트랑 다낭 호치민 5곳에 5억, 총 20개 국가에 100억을 투자하면 한국은 훨씬 많은 투자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입국전 한국어시험을 봐야하는데 현지 수도를 빼고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K-컬쳐 한류의 핵심은 한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아시아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한국에 플러스가 됩니다.

아시아는 45억이 사는 세계 최대시장이나 상권은 이미 일본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공략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기업, 교회들이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할 시장입니다. 그 교두보가 바로 한국어센터입니다.

	현지국가 →	국내 →	현지국가
내용	한국어교육	각종지원, 선교	귀국 피드백
주체	해외교회	국내교회	해외교회
역할	선교국, 지방회	연회, 지방회	선교국, 지방회

매년 한국 입국전 교육-한국 체류와 귀국의 과정에서 이들을 한류 전도사로 한국산 제품의 소비자로 만들수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높는데 그 어느 기업도, 교회도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다. 고작 정부가 국가당 한곳 운영하는 세종학당이 전부로 이를 확대 운영하자는 제안입니다.
가까운 동남아에 가보면 온통 일제차와 중국 제품들이 넘쳐나 여기가 일본인지 동남인지 구분
이 안될 정도입니다.
45억 아시아는 우리와 제일 가까운 지역이요 한국은 수출주도형 국가인데도 말입니다.

현지 한국어센터에서 적금사업, 협동조합 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선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가 핵심입니다. 한국어센터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10년이면 새마을
운동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개도국에 매우 적합한 사업입니다.
20년 후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100억으로 20개 개도국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는 초대
형 프로젝트 입니다.

3. 저출생·고령사회, 인구절벽, 지역소멸과 관련해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400조를 쓰면
서도 이렇다 할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이 추세대로라면 2100년에 한국 인구는 2천만명으로 절반 이상 축소 될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70년 인구는 3766만명으로 줄고, 노인비율은 46.4%가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
니다. 인구 감소는 미래세대들의 짐이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고, “인구가 전부다” 라는 절
체절명의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고, 민족의 자살이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
다.

●2022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도표 통계를 보면 내국인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유
입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성별 외국인 - 시군구

수득기간 : 년 2015 ~ 2022 / 자료갱신일: 2023-07-27 / 주석정보

시점 분석해제 행정렬환 열고정해제 분석 : 전년 대비 증감,증감률

(단위: 명)

행정구역별(시군구)	2022		
	외국인 원데이터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전국	1,752,346	102,379	6.2
읍부	219,686	13,392	6.5
면부	262,288	20,640	8.5
동부	1,270,372	68,347	5.7
서울특별시	360,947	13,867	4.0
부산광역시	55,973	2,639	4.9
대구광역시	38,849	1,893	5.1
인천광역시	110,201	9,822	9.8
광주광역시	32,863	2,366	7.8
대전광역시	26,283	3,020	13.0
울산광역시	26,352	964	3.8
세종특별자치시	7,197	206	2.9
경기도	600,925	29,721	5.2
강원도	27,633	3,051	12.4
충청북도	61,617	4,986	8.8
충청남도	108,619	10,007	10.1
전라북도	44,728	3,681	9.0
전라남도	49,558	5,399	12.2
경상북도	78,148	5,350	7.3
경상남도	96,303	4,467	4.9
제주특별자치도	26,150	940	3.7

1) 인구, 가구 및 주택 - 읍면동(연도 끝자리 0, 5), 시군구(그 외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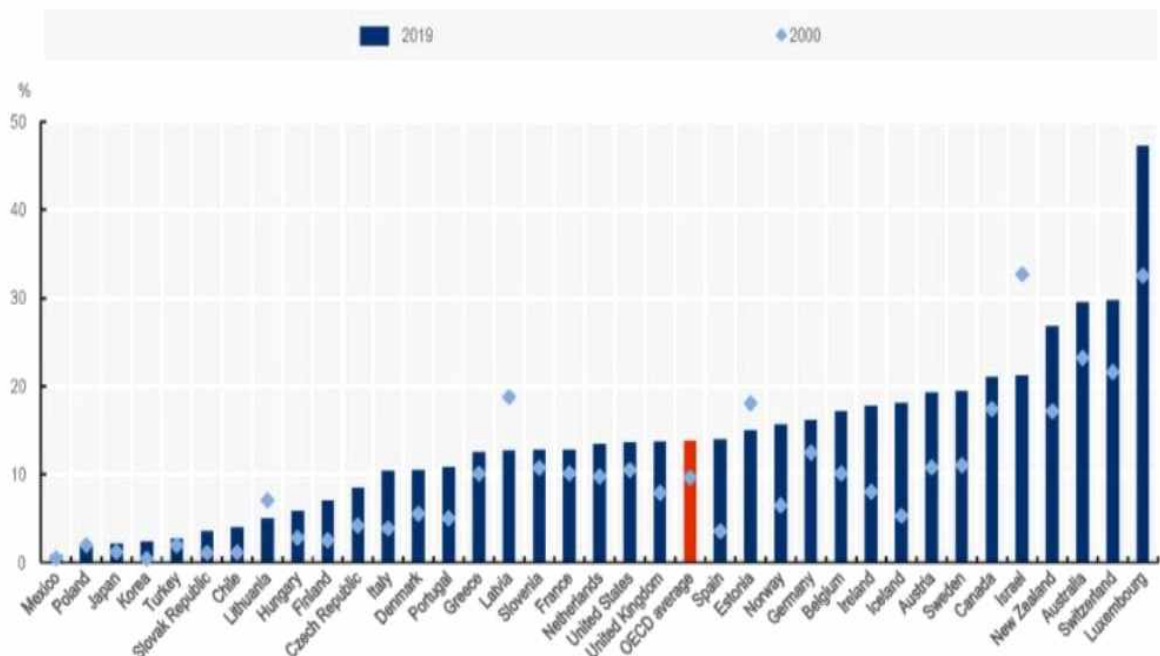
수록기간 : 년 2015 ~ 2022 / 자료갱신일: 2023-07-27 / 주석정보

시점 분석해제 행렬전환 열고정해제 분석 : 전년 대비 증감,증감률

행정구역별(읍면동)	2022			
	총인구 (명)			남자 (명)
	원데이터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원데이터
▲ ▼ -	▲ ▼ -	▲ ▼ -	▲ ▼ -	▲ ▼ -
전국	51,692,272	-45,799	-0.1	25,835,298
읍부	5,098,892	-84,942	-1.6	2,621,409
면부	4,506,486	-27,970	-0.6	2,348,865
동부	42,086,894	67,113	0.2	20,865,024
서울특별시	9,417,469	-54,658	-0.6	4,547,051

4. 외국인 인구 유입정책은 인구절벽 사회의 메인 대안이 아니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20년 가까이 400조를 쓰고도 묘안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민국가가 아닌 선진국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렇고 룩셈부르크가 그렇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인당 GDP가 세계 최고인 13만\$입니다. 인구 절반이 이민자인 나라로 세계 1위의 이민국가가 바로 룩셈부르크입니다.

Figure 1.12. The foreign-born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population in OECD countries, 2000 and 2019



● OECD 국가 이민자 통계 현황

OECD 2019-2020년 통계에 의하면 36개국가 회원국 중 해외 이민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47.3% 스위스와 호주 29.7%, 뉴질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스웨덴 순였습니다.

영국은 14%, 미국은 13.6%로 OECD 평균과 비슷했고, 하위 5개국은 튀르키예, 한국, 일본, 폴란드, 멕시코 였습니다.







순위	국가/지역	미국 달러(\$)	인구(만 명)
1	 룩셈부르크	132,372	64
2	 아일랜드	114,581	504
3	 노르웨이	101,103	546
4	 스위스	98,767	878
5	 싱가포르	91,100	594
6	 카타르	83,891	271
7	 미국	80,034	33,996
8	 아이슬란드	75,180	37
9	 덴마크	68,827	590
10	 호주	64,964	2,636
11	 네덜란드	61,098	1,767
12	 오스트리아	56,802	910
13	 이스라엘	55,535	965
14	 스웨덴	55,395	1,059
15	 핀란드	54,351	554
16	 벨기에	53,377	1,167
17	 산마리노	52,949	3
18	 캐나다	52,722	4,000
-	 홍콩	52,429	729
19	 독일	51,383	8,435
-	 마카오	50,571	64
20	 아랍에미리트	49,451	949
21	 뉴질랜드	48,826	489
22	 영국	46,371	6,773
23	 프랑스	44,408	6,475

IMF 2023년 10월 통계에 의하면 1인당 GDP가 높은 순위는 표와 같습니다. OECD 이민자 통계와 비교해 보면 이민자가 많은 나라들이 GDP도 높은 선진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절반 가량이 해외 이민자인 룩셈부르크는 1인당 GDP가 13만\$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1인당 GDP 6만5천\$로 인구 2600만명 중 30%가 해외 이민자로 이민정책 활성화로 1970년대 인구 1200만명에서 50년 만에 두 배 이상 높은 2600만명의 이민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외교부는 750만명의 재외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청을 2022년 인천에 신설했고, 법무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 250만명 시대에 이민청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150만명 시대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장기체류자는 해마다 100만명씩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고, 그 인원은 인구대비 10%인 500만 시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시대를 맞은 한국이 계속 미뤄왔던 이민사회로 현 정부도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염려를 하면서 세월과 예산만 낭비해왔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요국 이민정책 현황	
 미국	-바이든 정부, 전문직 취업비자(H-1B) '미국 내 연장' 허용 검토. -미국 대학·대학원 졸업한 유학생 중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졸업생은 체류 기간 3년으로 연장.
 캐나다	-2023~2025년간 이민자 150여만명 수용 계획. -지난해 6월부터 기술 및 경력 갖춘 이민자 대상 '신속이민제(Express Entry)' 추가 운영. 언어, 교육, 직업군, 연령 등을 점수로 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호주	-이민심사 점수제 평가기준(연령, 학력, 외국어, 영어 능력 등) 상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이민 가능. -STEM 및 IT 분야 석·박사 학위자는 영주이민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독일	-2020년부터 전 세계 숙련 노동자 및 전문가의 이민을 촉진하기 위한 '숙련노동자이민법(FEG)' 시행.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는 시민권 신청 기준이 8년 거주에서 5년으로 단축.
 영국	-지난해 특별재능비자를 '우수인력비자' 제도로 개편, 해외 우수인력에게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및 '잠재적 인재(High Potential Individual)' 비자 발급. 글로벌 인재 비자의 경우 리더로 판단될 경우 3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
 일본	-지난 4월 '특별고도인재(J-Skip)' 비자 도입. 일본 체류 이민자 중 연소득 2000만~4000만엔 이상, 전문직 근무 경력 5~10년 이상 등 조건 충족하면 5년간 체류 가능. -지난 6월 특정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기존의 노인요양·건설·조선 3개에서 제조·농업·호텔 등 12개로 확대.

〈자료: 각국 정부 발표, 해외 언론보도 종합〉

V. 현 정부의 외국인주민정책과 성서의 준거

저출생 고령화사회, 인구절벽과 지역소멸과 맞물려 현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을 살펴 보겠습니다.

1.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즉 5도2촌, 또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들도 실제 지역 거주자로 주민에 포함시킨다는 방안입니다.

2007년 행자부는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를 만들어 각 지자체에 하달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행안부가 예산은 세우지 않아 지자체의 몫이 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특별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행안부는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담부서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시·군·구의 외국인 주민 인구 2500명당 전담부서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제시한 바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행안부는 외국인거점지역 공모사업 정도의 저예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노동부와 법무부는 기존의 E-9(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기 위해 5년 미만인 4년 10개월 근무 후 출국 후 재입국 제도를 폐지하고, 출국하지 않고 10년까지 연장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난이 심각한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 택배 상하차, 물류센터 등 외국인 고용 요구

가 많은 직종까지 취업을 확대했습니다.

노동부는 2024년 16개 국가로부터 송출받는 고용허가제 쿼터 인원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 중기협 등에서 늘 외국인 쿼터 인력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70억원 '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교육부**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을 밝혔고, 탄력적으로 취업을 허용해 졸업 후 취업으로 연계해 영주권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유학생은 20만명 수준이며 기존에는 유학 비자가 만료되면 자동 출국하는 제도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해 줘 이들의 출국 보다는 한국에 정주시키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도 저출생·고령사회의 문제 때문으로 유학생들에게 취업비자를 주고 영주권까지 부여함으로 인구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 지방대 등 유학생 확보에 충력을 기울여야 함을 감안할 때, 현재 20만명에서 5년간 10만명을 더 유치하겠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며, 우수한 외국인력을 총원해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겠다는 현 정부정책 기조에 비하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미비한 상황으로 이들의 교육권 문제는 시간 관계상 제 책 ‘글로벌 다문화 공립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4. 법무부가 운영하는 농어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운영중인 외국인 계절노동자 비자도 기존의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그 인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만큼 농어촌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하고, 지역특화 비자제도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외국인력 수요에 탄력적인 맞춤형 비자를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또한 이민청 신설을 준비하고 있으나 난민 인정율이 2% 수준인 보수적인 입장과 미등록(불법 체류) 단속까지 서로 모순적인 업무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외국인 주무부처로서 영주권을 주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빈약한 예산도 늘 지적되고 있습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에게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기숙사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해 전남(담양군·무안군·영암군·해남군) 전북(고창군·진안군) 충남(청양군·부여시) 경북(영양군) 경남(거창군)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거점형 2곳 전남 해남군과 경북 영양군, 마을형은 8곳입니다.

국비 및 지방비 각 50%씩 총사업비 168억원을 투입했고, 기숙사가 건립되면 거점형은 120명 내외, 마을형은 50명 내외의 계절노동자가 생활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한해 농림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즉 노동부 소관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기숙사가 아님으로 향후 노동부에서도 이같은 농림부 외국인 기숙사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노동부는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6. 여가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폐지 수순을 밟고있어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진행 될 전망입니다.

여가부의 다문화 업무는 복지부로 이관될 계획으로 각 지자체에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내국인도 이용하는 가족센터로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7. 현 정부 대통령실에 종교·다문화 비서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임명된 뉴라이트 출신 김성희 비서관이 위안부 비하 발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임하지도 못하고 중도하차 했습니다. 2022년 9월, 4개월만에 사회공감 비서관로 명칭을 변경했고, 적임자를 찾지 못해 근 1년간 직무대리로 유지됐고 정상적인 다문화 비서관의 역할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청 신설, 법무부의 이민청 신설, 여가부 폐지에 따른 다문화가족 업무 이관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1년간 공석으로 방치됐다는 것은 현 정부에게도 매우 안타까운 일였고, 향후 다문화 비서관, 다문화 특보 등이 신설돼 부처간 업무 조율을 해야 정책 효율성 높일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인구 확대를 위해 전향적인 정책을 많은 부처에서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정부
혁신

개혁 목표 안정적인 외국인력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

이랬던 규제가 이렇게 바뀔거다

정책대상

킬러규제

솔루션



제한된 쿼터,
엄격한 전환요건

검증된 숙련인력 혁신적 확대

- I E-7-4 쿼터 확대
- I 기업과 지자체에 추천권 부여
- I 일정기간 계속 근무 의무화
- 효과 기업에 숙련기능인력 안정적 공급



유학과 취업 분리,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 허용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 I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 I 기업체 연수를 통한 취업기회 부여
- I 인구감소지역 취업 확대
- 효과 산업계 취업통로 확대를 통해 유학생 취업 활성화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 취업범위
제한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 I 동반가족 취업비자 확대
- I 비자 신속 발급 등 정주여건 개선
- 효과 첨단분야 우수인재 국내 R&D 인력으로 확보



이 디자인은 미리캔버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외국인주민, 외국인노동자 현황

행정구역별(1)	합계 (명)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명)					
	소계			소계			외국인근로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2,134,569	1,090,073	1,044,496	1,649,967	906,507	743,460	395,175	311,651	83,524
서울특별시	426,743	193,715	233,028	347,080	162,564	184,516	49,668	29,786	19,882
부산광역시	72,361	35,686	36,675	53,334	28,658	24,676	11,811	10,408	1,403
대구광역시	51,140	24,267	26,873	36,956	19,070	17,886	7,273	6,000	1,273
인천광역시	134,714	67,877	66,837	100,379	54,530	45,849	19,718	15,929	3,789
광주광역시	41,181	19,986	21,195	30,497	16,040	14,457	5,498	4,525	973
대전광역시	33,078	14,148	18,930	23,263	10,474	12,789	2,624	1,861	763
울산광역시	34,800	18,302	16,498	25,388	14,779	10,609	6,041	5,204	837
세종특별자치시	9,335	5,039	4,296	6,991	4,156	2,835	1,908	1,587	321
경기도	714,497	382,426	332,071	571,204	327,605	243,599	151,037	117,437	33,600
강원도	37,230	17,300	19,930	24,582	12,713	11,869	5,398	4,409	989
충청북도	73,529	39,904	33,625	56,631	33,711	22,920	16,392	13,626	2,766
충청남도	124,492	67,153	57,339	98,612	57,610	41,002	28,266	22,847	5,419
전라북도	60,684	29,026	31,658	41,047	21,681	19,366	9,464	7,956	1,508
전라남도	66,871	35,311	31,560	44,159	26,720	17,439	17,007	15,512	1,495
경상북도	98,197	52,290	45,907	72,798	42,978	29,820	21,253	18,516	2,737
경상남도	123,074	70,429	52,645	91,836	58,930	32,906	33,341	29,562	3,779
제주특별자치도	32,643	17,214	15,429	25,210	14,288	10,922	8,476	6,486	1,990

●결혼이민자, 유학생 현황

행정구역별(1)	기타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명)			2) 외국인주민자녀(출생) (명)		
	소계			소계			소계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554,972	293,756	261,216	210,880	43,467	167,413	273,722	140,099	133,623
서울특별시	111,332	54,530	56,802	44,768	13,418	31,350	34,895	17,733	17,162
부산광역시	18,647	9,420	9,227	6,700	798	5,902	12,327	6,230	6,097
대구광역시	13,804	6,792	7,012	4,902	495	4,407	9,282	4,702	4,580
인천광역시	38,308	20,991	17,317	17,363	4,584	12,779	16,972	8,763	8,209
광주광역시	11,096	5,594	5,502	3,675	295	3,380	7,009	3,651	3,358
대전광역시	8,226	3,597	4,629	3,420	424	2,996	6,395	3,250	3,145
울산광역시	9,076	4,774	4,302	3,494	481	3,013	5,918	3,042	2,876
세종특별자치시	1,941	1,078	863	803	108	695	1,541	775	766
경기도	183,232	102,476	80,756	70,768	17,779	52,989	72,525	37,042	35,483
강원도	8,873	4,314	4,559	4,367	360	4,007	8,281	4,227	4,054
충청북도	19,066	10,359	8,707	6,212	748	5,464	10,686	5,445	5,241
충청남도	32,205	17,294	14,911	9,801	1,362	8,439	16,079	8,181	7,898
전라북도	14,544	6,721	7,823	6,272	370	5,902	13,365	6,975	6,390
전라남도	15,001	7,561	7,440	6,769	372	6,397	15,943	8,219	7,724
경상북도	26,389	13,737	12,652	8,377	603	7,774	17,022	8,709	8,313
경상남도	33,671	19,456	14,215	10,721	851	9,870	20,517	10,648	9,869
제주특별자치도	9,561	5,062	4,499	2,468	419	2,049	4,965	2,507	2,458

■기타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 현황

행정구역별(1)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구분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174,632	36,820	137,812	156,607	74,048	82,559	368,581	190,232	178,349
서울특별시	31,098	10,071	21,027	51,854	17,795	34,059	103,128	50,382	52,746
부산광역시	7,340	1,354	5,986	11,317	5,475	5,842	4,219	2,001	2,218
대구광역시	5,421	919	4,502	6,968	3,594	3,374	3,490	1,765	1,725
인천광역시	12,216	2,963	9,253	5,184	2,495	2,689	24,953	12,152	12,801
광주광역시	3,709	575	3,134	6,184	3,266	2,918	4,010	2,080	1,930
대전광역시	3,472	525	2,947	6,866	3,524	3,342	2,075	967	1,108
울산광역시	3,394	542	2,852	1,649	1,093	556	5,228	3,166	2,062
세종특별자치시	880	171	709	1,279	802	477	983	518	465
경기도	54,467	12,926	41,541	22,358	11,435	10,923	160,110	83,331	76,779
강원도	3,868	394	3,474	4,131	2,545	1,586	2,312	1,051	1,261
충청북도	5,672	806	4,866	3,864	2,256	1,608	11,637	6,664	4,973
충청남도	9,129	1,252	7,877	7,310	3,705	3,605	21,702	12,512	9,190
전라북도	5,903	561	5,342	8,593	5,129	3,464	2,543	1,314	1,229
전라남도	6,685	460	6,225	2,795	1,695	1,100	2,671	1,492	1,179
경상북도	7,924	998	6,926	10,268	5,852	4,416	6,964	3,875	3,089
경상남도	10,525	1,813	8,712	3,950	2,196	1,754	10,349	5,903	4,446
제주특별자치도	2,929	490	2,439	2,037	1,191	846	2,207	1,059	1,148

■행정구역(시도)/고용허가제 구분별 사업장 수

1) 행정구역(시도)/고용허가제 구분별 사업장 수

「고용허가제고용동향」 고용노동부 (자료문의처: 044-202-7151) 통계실명자료

수록기간 : 분기 2022 1/4 ~ 2023 2/4 / 자료경신일: 2023-08-07 / 주석정보

시점 : 증감/증감률 : 행정결전환 : 열고정해제 : 새 탭 열기 : 화면복사 : 주소/출처 : 스크랩 : 인쇄 : 다운로드

(단위: 개)

행정구역별(1)	2023.1/4				2023.2/4			
	계	일반고용허가제 (E-9) 사용업체 수	일반고용허가제 (E-9)와 특례고용허가제(H-2)병행 업체 수	특례고용허가제 (H-2)사용업체 수	계	일반고용허가제 (E-9) 사용업체 수	일반고용허가제 (E-9)와 특례고용허가제(H-2)병행 업체 수	특례고용허가제 (H-2)사용업체 수
구분	합계	남자	여자	합계	합계	남자	여자	합계
합계	61,133	49,606	2,376	9,151	61,996	50,841	2,339	8,816
서울특별시	3,214	253	9	2,952	3,114	259	8	2,847
부산광역시	1,391	1,293	34	64	1,448	1,350	33	65
대구광역시	813	760	18	35	841	786	20	35
인천광역시	3,099	2,504	147	448	3,109	2,515	153	441
광주광역시	682	626	19	37	673	622	19	32
대전광역시	204	168	4	32	212	173	3	36
울산광역시	820	670	49	101	857	713	46	98
세종특별자치시	239	188	16	35	241	191	18	32
경기도	24,795	19,270	1,307	4,218	24,918	19,614	1,274	4,030
강원도	1,130	1,048	15	67	1,238	1,149	14	75
충청북도	2,869	2,358	227	284	2,953	2,473	213	267
충청남도	4,926	4,212	266	448	4,978	4,261	271	446
전라북도	2,183	2,091	25	67	2,289	2,206	26	57
전라남도	4,068	3,966	50	52	4,152	4,056	48	48
경상북도	3,160	3,003	57	100	3,269	3,110	60	99
경상남도	6,235	5,928	128	179	6,359	6,057	129	173
제주특별자치도	1,305	1,268	5	32	1,345	1,306	4	35

8. 이주외국인들을 섬기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대로 이방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환대하라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요구입니다.(출애굽기 22장 21절)

한국에서 강도 만난 이웃인 이주민들을 돌보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말씀하신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누가복음 10장 25~37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초대교회의 요구대로(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에서 온 이주민들을 증인 삼아야하는 것은 성령시대의 주님의 부탁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은 사회 약자층이 많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으로 한국교회가 이들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신명기 10장 17~19절)

또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복음 10장 37절)는 주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2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책임

홍주민(한국디아코니아 대표)

1.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한다. “타자를 위한 교회”에 대한 요구는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지속되어왔다. 디트리히 본회퍼의 이러한 교회론의 단초는 많은 신학자들과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대면하는 이들에게 디아코니아 교회의 화두로 이어졌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약자 이웃에 대한 연대적 참여 없이, 다시 말해, 디아코니아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약자 이웃에 대한 연대적 사랑 실천이 수없이 이어져왔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디아콘(diakon, 시종드는 이)으로 자신을 규정하였고(누가22,27) 성서 전체가 약자인 이웃과의 연대에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교회는 현재 약자 이웃과의 연대 실천, 즉 디아코니아의 불을 일으키고 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140여 년전 한국에 유입된 개신교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 긍정적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개신교는 한국 사회에 개인주의와 경쟁에 기반한 에토스를 사회 저변에 확산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연대가 아닌 개인적인 성공주의에 기반한 이기심과 경쟁을 촉진하는 인간과 교회의 출현을 가져왔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사회의식의 한가운데 개신교의 근본주의 신학과 개인주의에 기반한 반연대적인(반디아코니아적인) 신앙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 상황은 반디아코니아적 신학이 결과한 참담한 상태다. 한국개신교를 서술하는 이즘이 상당하다. 세속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 배금주의, 성장주의, 대형주의, 경쟁주의, 집단주의, 배타주의, 적대주의, 세습주의 등이다. 이는 한국 사회를 특징지우는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적 성과주의가 교회 안에도 점유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양극화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불안 사회가 되었고 한국 개신교는 이러한 기류를 가속화하는 동력으로 치부되고 있다.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교회 안팎으로부터 제기된 지 오래다. 500년 전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총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래의 개신교는 지나간 역사의 흐름 속에 공감과 연대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사회를 치유하고 촉진시키고 열린 체계로 추동하는 역할을 해왔다. 다시 말해, 지나간 500여 년간 개신교는 역사적인 굴곡이 있었지만 반연대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로 몰고 가는 힘이 아니라 연대와 공감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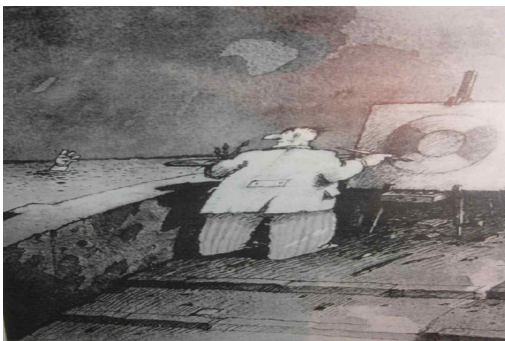
고 책임사회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을 해왔다. 지난 500년 전 개신교가 태동된 서유럽과 북유럽국가는 이러한 사실을 영향사적으로 증명한다.

왜 한국 개신교는 이와는 달리 이질적인 성격을 내재하게 된 것일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신학적인 문제다. 한국개신교는 종교개혁이 배태하고 있는 디아코니아적인 성격을 배제한 반(反)디아코니아적 신학인 근본주의 신학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보수적인 신학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일반의 신학과 교회에서도 종교개혁에 대한 상이한 이해나 오해로 종교개혁의 본래의 시원(始原)이 되는 디아코니아에 대한 본질적 기능을 방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이다. 프랑스의 역사가이자 의회주의자 그리고 사회개혁가인 장 조레스(1859-1914)는 중요한 논점을 던진 바 있다. 그의 일성은 다음과 같다: 전통은 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불을 지르는 것이다. 다음은 1910년 파리 의회석상에서 그가 한 언급이다: 화덕안의 화염은 인간의 여러 세대를 거치며 타올랐고 불꽃을 내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가 조용히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이상을 향해 투쟁한다면 우리는 선대들의 유업을 이어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때문에 이제 화덕에서 불씨를 꺼내자. 그리고 불을 지르자. 타다 남은 재만 기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면에서 개신교인으로 종교개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과 물려줄 것에 전제되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다.

수표교교회 15차 기념 포럼에 초대되어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본인에게 주어진 주제는 개신교의 정체성과 종교개혁의 현재화라는 큰 주제 아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책임”이다. 이 주제를 위하여 먼저 디아코니아와 개신교의 연관성에 대해 논구하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세계교회의 움직임과 한국교회의 대응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디아코니아적 책임에 대하여 비판적인 성찰을 하는 장이 되길 고대한다.

2.



바다에 한 사람이 빠져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해변에는 한 화가가 구명보트를 그리고 있다. 짙은 어둠이 드리우고 비가 내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박한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할 구명 튜브를 그리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고발하며 풍자한 작품이다. 독일 차이트(Die Zeit)지에 화가이자 작가인 유고슬라비아 출신 보리스라브 사이티낙이 1991년에 게재한 그림이다. 이 그림은 디아코니아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준다. 디아코니아는 단지 가슴과 입

으로만 증언되어서는 안되며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를 던져주는 그림이다.

디아코니아는 교회가 양도할 수 없는 표식중 하나이자 교회의 과제에 근거를 둔다.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존재표현이다. 도움을 행하는 사랑 행동과 말씀으로 섬기는 직무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위하여 이 둘 중 아무 것도 포기할 수 없다. 때문에 교회는 초기부터 사랑 행동을 일상에서 예배의 연장으로 이해했다. 디아코니아는 말씀과 사랑 행동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살아있는 신앙이다. 신앙은 복음의 선포로 응답한다.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지체는 디아코니아를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이다.

개인적으로 독일에서의 디아코니아와의 만남은 운명의 순간이었다. 수많은 디아코니아 현장과 디아코니아 학문의 장에서 만난 이들은 종교개혁의 전통에 선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칭에 대해 깊은 의미를 던져주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디아코니아는 개신교 교회의 중요한 축으로 지난 500여년의 역사를 서술해왔다. 독일 디아코니아의 현황을 간략하게 서술해본다:

독일 개신교의 디아코니아는 현재 약 33,000개이고 45만 여명의 직원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70만 명 정도의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1000만명 이상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등, 디아코니아 실천운동은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직원 중 26만 명 정도가 고정된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 40%에 해당하는 이들이 양로원, 청소년 기관, 장애인 기관, 그리고 병원에 속하여 있다. 특히 독일 전체 장애인 시설의 1/2, 유치원의 1/4, 병원의 1/10이 디아코니아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 현재 디아코니아에서 제공하는 아동 청소년 도움은 62만 여명, 가족에게 제공되는 도움은 10만 여명, 노인을 수발하는 19만 여 수용자리, 장애인 19만 여명을 돌보고 병든 이들을 위해 6만 4천 병상,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 2만 8천여 명을 돌본다. 흥미 있는 것은 534개나 되는 디아코니아 재교육시설에서 4600여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교육시설을 예로 들면, 간호학교, 전문대학, 자매회 예비학교, 성서-선교학교 등이다. 또한 4300여개의 자원봉사 동아리들이 움직이고 있고 18,000개의 교회가 이 섬김의 사역에 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25개의 주교회(Landeskirche)와 9개의 자유교회(Freikirche) 그리고 90개의 전문협회가 개신교디아코니아사업단에 속하여 있다.

독일 교회는 교회법에 교회의 본질을 말씀선포와 디아코니아로 명기하고 있다. 이는 성서의 근본정신인 디아코니아가 단지 머리와 입으로 만의 사랑이 아닌 사랑 행동에 주안점을 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는 성서적이고 신학적으로 하는 실천임을 말한다. 단순한 사회복지실천이 아니란 말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원뿌리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우리는 종교개혁의 신학과 실천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 주장된 종교개혁 명제인 칭의론은 사회적 실천에 대하여 철저히 새로운 신학적 방향설정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의인 신앙과 행하는 이웃 사랑을 연결시킨다. 정리해보면, 종교개혁의 신학적 명제 중 핵심인 칭의론에 대한 개혁가들의 원래 의도는 신앙만을 강조하려는 일면성에 있지 않고 신앙과 사랑의 통일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신학적 변혁은 신앙적 실천을 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추동시켜 나아가게 했다.

종교개혁에 의해 지구상에 새로이 출현한 개신교는 중세 가톨릭이 주장했던 성직계급과 교회를 통한 구원의 전달체계를 뒤흔들어 버렸다. 그 결과 믿음으로 새로워진 이들은 누구나 사제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모든 신자의 보편사제직이 개신교인의 자의식을 규정하게 되었다. 또한 신앙으로 새로워진 이들은 사랑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명제아래 이웃 약자들에 대한 연대로 이어져 16세기 초반, 유럽의 사회복지체계가 법적인 형태로 기반을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종교개혁 사건은 디아코니아실천으로 사회 약자를 향한 실천으로 귀결되었다.

이웃사랑을 황금률로 여기는 기독교는 약자와의 연대와 결코 무관한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연대국가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원리인 ‘연대’라는 가치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지나온 서구의 기독교 역사는 그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디아코니아라는 이름으로 이어온 영향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서유럽, 북유럽의 사회국가라는 사회체제는 개신교의 디아코니아실천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개신교를 태동시킨 독일은 지난 500여 년간 특유한 연대의 문화를 통해 사회국가라는 시스템을 장착시켰다. 그러한 형성과정에 독일 개신교와 디아코니아는 독보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는 유럽통합과정의 선두에서 유럽대륙을 연대의 대륙으로 만드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 한 가운데 개신교의 디아코니아가 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서술해보자. 현재 유럽에서 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독일이고 실제로 독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많은 난민을 수용하였다.

글로벌 난민 위기가 증폭되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유럽연합 국가 중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나라는 독일이다. 그 기간에 독일에 접수된 망명 신청만 대략 120만 건이 넘는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는 독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독일의 국가적 의무라 선언하고 난민법 개정에 돌입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난민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2022년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상을 받았다. 그는 2015년 120만 명이상 난민을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난민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2023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의 날 독일 국민, 나아가 유럽 사회에 “자신감 있고, 자유로우며 자비롭고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항상 우리의 강점은 다양성이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민자 포용’과 같은 통일의 새로운 서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신교 목사의 딸인 그가 난민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 것은 약자인 이웃에 대한 연대와 참여가 성서의 정언이자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디아코니아가 이주민과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성서적 전거는 무엇일까. 다음에 간략히 그들의 성서적 입장을 정리해본다. 성서는 이주와 난민의 이야기로 가득한 디아코니아 문서모음이다. 탈출과 추방 그리고 이주에 관련된 운동의 동기가 에덴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부터의 추방(창세 3,23-24; 4,16; 11,2,8)으로부터 하늘 예루살렘의 도래 그리고 이른바 요한 계시록에서의 예수의 도래에 대한 부름으로 이어진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인 히브리성서는 조상들의 방랑에 대한 거대한 서사(창37-50)와 출애굽(출애-신명)으로 이어진다. 신약성서에서도 성(聖)가족의 이집트로의 도주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방랑하는 실존 그리고 바울의 선교여행과 그의 동역자들의 “길위의 사람들”로서 초기 교회는 묘사된다. 이는 구약성서나 신약성서나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운동하고 방랑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신약에 있어서도 지상의 예수가 방랑하는 삶속에서 하나님의 운동성을 반영하고 있다.

성서에는 도처에 이주와 추방 그리고 난민의 경험이 반영되어있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과 교회는 이러한 성서의 근본적인 운동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런 이주와 난민경험을 보편화하거나 영적인 것으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주와 고향상실은 성서안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운명이었다.

교회와 신학은 4세기경 국가 교회가 되면서 더욱 국가전략상의 신학으로 되었고 구체적인 이주 경험을 영적인 것으로 감춘다. 반면에 생생하게 운동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운동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배자와 질서에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여기에 이주의 역할이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고대 교회와 중세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배경과 유대민족의 운명, 이른 바 2차 유대전쟁 이후 팔레스타인에서의 추방을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형벌로 설명하면서 이주와 조국의 상실을 형제살해와 신성모독의 동의어로 치환했다.

이러한 것은 2차 세계대전속의 유럽의 경험했던 수백만의 난민과 추방경험에서의 기독교적 이주에 대한 망각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른 바 제 3세계와 최근의 이주와 추방의 현상에서야 비로소 이주민과 함께하는 유럽의 교회와 사회가 성서의 중심으로부터 배제한 진실과 만나게 되었다. 영적으로 “안주한” 기독교가 성서읽기에 있어서 낯선 자신의 진실을 새로이 보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다.

성서에서 이주와 관련된 본문은 이스라엘이 도주와 탈출, 방랑 그리고 도상의 존재의 수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촘촘히 서술되어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세우는 경험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주와 난민 그리고 추방의 경험은 새로운 공생의 근거를 제시하여주는 것이지 결코 무기력한 희생자나 수동적인 도읍수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너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그네의 심정을 알기 때문이다(출애 22,20; 23,9). 이주민과 난민법의 핵심인 이 구절은 성서의 가장 오래된 계약법전에서 두 번이나 강조되며 모세가 시내산에서의 받은 모든 계명과 계속된 공생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주에 관련된 중요한 서술로 이어진다(출애 19-민수10). 낯선 삶에 대한 심정을 기억하고 감지하는 것이 두 번이나 강조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어두운 것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함으로 새로운 자유를 향하는 표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주민과 난민은 사회법의 척도로 가장 약한 이웃으로서의 약자의 위치에 나열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교회와 디아코니아가 동등한 가치에 존재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요약한다. 이러한 것은 예수의 사랑 이중계명(마태 22,37)로 이어지며 유대교적 - 기독교적 신앙의 중심으로 연결된다.

출애굽 사건이전의 다양한 조상들의 이야기는 네 세대(아브라함-사라, 이삭-레베카, 야곱-라헬/레아와 요셉이야기) 족보로 이어진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이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가나안에서도 “난민으로” 살아간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창세 20,1; 26,3; 37,1). 이러한 부자유함의 경험과 생존을 향한 문제는 이른 바 주전 520년 바벨론 유배기간과 그 이후에 서술된 역사의 기록에도 나온다.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가거나 지금의 페르시아의 지배자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유대로 돌아오는 역사적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낯선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의 제국의 힘 아래에서 다종교적이고 다인종적인 상황속에서 평화적인 공존의 모델로서 유배이후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 자손들과 가나안 거류민들과의 관계가 분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존의 삶을 살아낸 것은 종교적 차원에서 상호간의 인정으로 가능한 것이었음을 볼 수 있다.

4.

박해를 피해 도망쳐온 사람들이 난민이라면, 이주민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주해 온 이들이다. 난민은 여러 이유로 자신의 나라에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른 나라로 이주한 이들이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의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다른 나라로 떠난 이들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전 세계 난민의 수는 8,240만 명이다. 이는 2010년에 비해 2배이며, 게다가 각자의 나라 안에서 피난민이 된 5,500만 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현행 난민 발생 추세를 고려해보면, 하루 평균 약 37,000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이 자국에서 각종 박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강제 이주를 선택한다(UNHCR, 2019). 2018년 제주도에 예멘 난민의 유입 및 난민 신청은 이러한 글로벌 난민 발생 현상과 연관이 있다.

한국에서의 난민 현실은 이주민에 비해 아주 열악하다. 2022년 난민인정률이 2.03%로 EU 35%와 OECD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99%의 난민신청자의 생존은 그야말로 유명과 같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삶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 정부는 난민법을 개정하여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난민심사의 기회와 불복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

2018년 여름, 제주에 유입된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로 인해 한국 사회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난민 인정 찬반을 둘러싼 종교, 시민 단체간의 대립과 맞물려 근거 없는 이슬람 혐오증(Islamphobia)과 반이민정서의 심화 등 사회 갈등이 전국적 확산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주 예멘 난민들의 경험을 통해 정부는 난민행정 및 관련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난민에 대한 인종주의 경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 개신교 일부의 반이슬람 반난민 정서를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2018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난민 정서에 근거한 난민법 개정 및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71만 명

이상 동의를 기록하는 등 난민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과 여론이 확산된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당시 한국 개신교는 무관심과 혐오 그리고 종교적 개종을 위한 시도로 난민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드러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5.

서두에 본인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논구했다. 종교개혁의 전통에 선 우리는 개신교인으로 한국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 ‘직무’는 신약성서의 원어인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이다(diakonia, 고후5,18).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성서에 기인한다. 성서는 오래전에 작성된 문서이지만 오늘날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인다. 하지만 성서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전통을 기리고 기억하는 데에 머물러선 안된다.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건을 오늘 다시 사건으로 불을 지르는 데에 의미가 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디아코노스였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분이시다. 특히 약자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영을 받고 2000년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지상에서 활동했던 예수는 자신을 디아코노스라 명명하였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뒤를 잇고 있다.

약자 이웃 중 ‘게르(ger)’라는 이주민과 난민은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당파적 사랑의 대상이자 친구였다. 하지만 교회와 신학의 역사는 이들에 대해 영적인 의미로 치환하여 망각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그런 이유로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가 잊혀지고 비정상적 교회와 신학으로 몰락한 아픔을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교회안에 이러한 기류에 정면으로 맞서는 디아코니아 운동이 지난 날 강하게 부상했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진정한 사랑행동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약자인 이웃에 대한 실질적인 디아코니아 실천은 처음 교회로의 회복이자 성서의 진리와 전통에 대한 하나의 “불 지름”이다. 한국교회가 이주민과 난민의 친구가 되는 것은 예수의 얼굴을 한 교회로의 회복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교회 디아코니아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근래에 디아코니아, 섬김이란 운동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지도자나 교회지도자 그리고 신학자들의 주제가 요즘처럼 섬김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던 적은 없을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섬김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디아코니아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부재’로 여러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 있다. 하여 말로는 섬긴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배하거나, 영똥한 대상(?)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한국 개신교 교회가 세계역사상 가장 급성장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연대를 통한 연대국가형성에는 그리 좋은 영향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단순히 선교의 방편이나 도구로 이용된다든지, 우리안의 욕심을 극대화하는 우리안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6.

최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수많은 이들이 참사를 당하였다. 이 사건은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였다는 진단이 나온다.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의 성지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의 화약고가 갈등의 비등점이 차면 주기적으로 분쟁이 일어난다. 언론을

통해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름들이 거명된 것을 보면 아브라함 협정, 이스마엘... 성서의 이름들이 계속 이어진다. 히브리 성서를 공유하고 있는 세 종교는 왜 끊임없이 분쟁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가.

지난 세기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평화 프로젝트를 제안한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 J. B. 메츠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하나님은 약자인 이웃의 상처와 고통에 민감한 신이라는 공통분모를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낯선 고난에 대한 공감(Compassion)이 세 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다. 예수의 일차적 관심은 이웃의 죄가 아니라 이웃의 고난이었다. 예수에게 있어 죄는 이웃의 고난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예수는 “고난에 대한 공감능력”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여겼는데 바로 ‘사랑’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확인한다. 그런 신에게 다가가 분쟁의 진원지에서 평화의 진원지로 만들자는 내용을 그는 제안한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공격에 이은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수많은 이들의 참상소식을 들으며 다시 평화의 하나님을 향한다.

다문화와 다인종 그리고 다종교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한국사회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께서 최종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리라: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여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7.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주민과 난민은 여러 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난민과 타종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세계의 고난에 대한 민감성과 공감 능력과 의지를 고양시켜야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난민에 대한 현 정부의 난민법 개정과 함께 이주민센터에 대한 지원이 대폭 축소되는 시대에 교회는 지역에 있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이주민 난민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이주민과 난민이 사회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여야 한다. 출산율 최하위인 한국의 인구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주민이나 난민의 수용은 막연히 수요 공급원칙으로는 설명이 안된다. 좀 더 합리적이고 학문적 정합성을 가진 설명을 통해 이주민과 난민이 가지고 있는 소양을 이끌어주는 단계와 절차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한명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 왔다는 말이 있다. 이주민과 난민은 하나님 형상으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다.

현재 한국에 온 난민중 인도적 체류자나 난민신청자는 단순노무직에만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전문가적 특성이나 개인의 능력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사려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박해에 대한 공포 등 취약성을 극복하도록 회복력을 증진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중재자로서 사회 적응과 통합 연계에 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논찬

이승현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장)

한국 사회의 고령화, 세계 최저의 출산율,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이주민 선교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한 선교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이주민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김봉구 목사님과 한국디아코니아 대표 홍주민 목사님의 발제를 통해 목회자이자 교단에서 이주민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학과 정책 두 가지 관점에서 신학적인 부분은 제안을, 정책적인 부분은 감리교 이주민 선교 현황에 대한 보고로 논찬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이주민 선교 신학의 정립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주민 선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때 감리교회는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성경과 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홍주민 목사님은 “타자를 위한” 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신학적인 문제라고 단언하면서,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섬김의 신학 즉 디아코니아 신학을 이주민과 난민을 위해 한국교회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나아가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디아코니아 신학이 이주민과 난민 수용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으로 성서를 들면서 이주민과 난민의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김봉구 목사님도 한국교회가 이주민들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주민사역의 근거를 성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논의는 이주민을 주제로 한 신학연구와 성서해석을 동반해야 합니다.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환대의 담론을 기반으로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이주민 선교를 설명할 수 있고, 홍주민 목사님이 제시한 디아코니아 신학과 같이 실천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디아스포라 선교신학과 같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교학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이주민의 눈으로 읽고 해석하면서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선교를 위해 영성, 예배, 설교, 교육 등 다양한 신학 분야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감리회 안에는 53개 이주민교회와 사역기관이 있습니다. 이는 감리회에 속한 6,652개 교회 중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이주민 선교를 위한 본격적인 신학 및 성서 연구는 지역교회가 이주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교육하고, 교회내 성도들을 교육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민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에 이주민 선교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과 사역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감리회 이주민 선교 정책

김봉구 목사님은 2002년 대전에 살림교회를 개척하고 외국인노동자쉼터를 설립한 이후 21년째 이주민 사역에 헌신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민선교 과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감리교회 안에서도 이주민 선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제34회 입법 총회에서 '국내이주민선교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17년과 2019년 입법총회를 거쳐 세 번의 도전 끝에 2021년 입법총회에서 신설된 '국내이주민선교사' 제도는 지금까지 세계 선교의 공간을 '해외(국외)'로만 국한했던 '국외선교사관리규정'을 '세계선교사관리규정'으로 대체하면서 해외선교사가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해도 선교사로 인정해 주도록 선교사의 자격과 범위를 확장한 제도입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저출산율, 이주민 증가이외에 코로나 팬데믹, 선교사 추방, 비자발급 중단, 내전 등의 영향으로 귀국한 선교사가 5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의 타문화권 선교경험과 지식을 국내 거주 이주민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세계선교사관리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국내이주민선교사는 만 60세 이하의 전, 현직선교사로서 8년 이상의 선교사 경력자가 지원이 가능하며 선교사 자격인준 심사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이주민선교사는 국내 이주외국인(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로서, 감리교회 개체교회 내 외국인예배와 목회를 담당하거나, 기존의 감리회 내 이주민선교교회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주민기관, 다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속한 선교단체에서 이주민 선교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자가 신생 법인이나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이주민 선교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의 구입 시 재단편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교국에서는 국내이주민선교사 제도의 도입과 함께 2022년 5월과 6월에 걸쳐서 감리회 이주민 선교 교역자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어서 국내이주민 선교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감리회 안에는 국내이주민선교사 선발 과정을 거친 두 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국내이주민선교사 제도를 통해 감리교회의 이주민 선교가 활성화된다면 해외 사역에 헌신했던 선교사의 타문화권 경험과 지식이 국내거주 이주민을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고, 이주민 종교, 특히 이슬람의 도전과 확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의 국내 이주민선교 분야 재배치와 선교협력을 통해 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의 이주민선교교회와 기관들의 선교 사역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시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 외국인들에 대한 제자교육을 통해 그들을 본국으로 역(逆)파송하는 선교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논찬

박천웅 목사 (다문화학 Ph.D. (사) 국경없는 마을 이사장)

연구 발표하신 두 발표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발제1, 발제2 순서로 논찬하고 마지막에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1의 논찬 : “다민족·다문화·이민사회, 한국교회와 사회적 과제” -한국교회의 이주 외국인 선교 현황과 방향(발제자 김봉구)

발제자는 한국의 이민정책과 한국교회(감리교)의 선교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의 조명은 좋았다. 그러나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서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첫째, 발제의 제목과 내용 연결에 아쉬움이 있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의 목차에서 보듯이 발제자의 발표가 다문화사회의 한국교회와 사회적 과제인지 정부정책의 과제인지 내용 구분과 연결성이 아쉽다. 나아가 지나치게 정부정책을 많이 소개하였다. 발표 내용 중 4번 대안과 5번의 현 정부의 외국인주민정책은 필요부분을 주제에 맞게 언급만하고 발표자의 제목이 주는 주제에 집중하거나 아예, 발표에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

둘째, 발표 내용의 집중성이 아쉽다. 이민정책의 주변 정보를 너무 많이 소개하여 무슨 내용을 전달하려는지 내용이 분산 되고 있다. 발표자의 2번 발표의 한국교회(감리교회) 현황과 선교 과제에 초점을 두고 발표의 집중 성을 가졌으면 더 좋았다.

셋째, 발표 내용 중 수정이 요하는 부분도 있다. 각 교단의 이주민 선교 담당 기구 중 예장은 인권선교협의회가 아니라, 예장은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이주민 선교를 관장하며, 다문화선교위원회가 있으며, 실무자 기구는 총회이주민선교협의회가 있다. 2023년 총회에서는 총회장 직속 특별기구로 ‘디아스포라 특별위원회’를 설치 중에 있다.

넷째, 발표자는 다문화선교 활성화 7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왜 7가지 방안이 다문화선교 활성화 방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① 본부와 선교국은 현재 유명무실한 이주민선교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모색 필요하다. ② 총회 산하의 다문화선교위원회를 구성해 본부 차원에서 대응 필요하다. ③ 각 연회에 별도의 다문화선교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연회 산하나 사회평신도부 산하에 설치해 이주민선교 활성화를 모색하고 실천이 필요하다. ④ 다문화선교주일 제정을 통한 다문화사역 지원하는 교회와 관련단체를 지원할 필요하다. ⑤ 총회주일 또는 사회선교주일을 제정해 다문화선교주일 대체 가능하다. ⑥ 3개 신학대에 사회선교(다문화선교) 필수과목 설치가 필요하다. ⑦ 자원봉사, 절기 행사 등 개 교회 차원의 이주민들과의 접촉점 확장 필요하다.

다섯째, 발표자는 대안으로 이민청 신설과 세계평화부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이 교회의 고유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기엔 정부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을 혼동하는 듯하다. 세계평화부(인구이민부)의 설치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한국어센터에서 적금사업, 협동조합 교육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한국교회의 이주외국인 선교 현황과 방향은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 하청 프로그램만 제시하였다. 정부 사업을 위탁받자는 것인지 프로젝트를 받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의 고유한 대안인지 궁금하다.

발제2 논란 :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책임(발제자 홍주민)

발표자는 크게 독일의 디아코니아 현황과 난민 수용 실태, 한국의 난민 수용 현실,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책임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독일의 디아코니아 현황과 난민 수용 실태를 소개하였다. “독일 개신교의 디아코니아는 현재 약 33,000개이고 45만 여명의 직원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4300여개의 자원봉사 동아리들이 움직이고 있고 18,000개의 교회가 이 섬김의 사역에 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 소개하였다. 발표자는 글로벌 난민 위기가 증폭되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유럽연합 국가 중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나라는 독일이라고 소개하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독일의 국가적 의무라 선언하고 난민법 개정에도 돌입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난민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독일에서의 난민 수용이 독일 디아코니아 실천의 결과인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지도력의 결과 인지 설명이 불충분하다.

발표자는 한국의 난민 수용 현실은 아주 열악하다고 보았다. 한국에서 2022년 난민 인정률이 2.03%로 EU 35%와 OECD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99%의 난민신청자의 생존은 그야말로 유령과 같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삶이다. 그 이유로 한국인의 난민에 대한 인식 부족임을 지적하였다. “2018년 여름, 제주에 유입된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로 인해 한국 사회는 충격을 받았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난민에 대한 인종주의 경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 개신교 일부의 反이슬람 反난민 정서를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책임에 대하여 발제자는 다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성서적 가르침에 충실할 것으로 나그네에 대한 대접(마태25장)을 제시하였다. 교회가 할 일에 대하여 발표자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절실한 이주난민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교회의 ‘이주난민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 기구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② 이주민과 난민이 사회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구성원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위기에서 수요공급의 대상자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③ ‘이주민과 난민이 가지고 있는 소양을 이끌어주는 단계와 절차’가 필요하다. 이주민과 난민은 하나님 형상으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다. ④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박해에 대한 공포 등 취약성을 극복의 중재자’로서 사회 적응과 통합 연계에 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발표자의 독일의 디아코니아의 실태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① 발표자는 이주 난민의 수용과 독일의 디아코니아와 연결하여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독일의 디아코니아가 어떻게 유럽 최고의 난민 수용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② 한국의 난민 수용률이 낮은 것이 교회의 디아코니아 부족인지 정부정책의 부재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③ 발표자가 제시한 한국교회가 이주난민에 대한 디아코니아 책임으로서 ‘이주난민 기구 설치’, 난민에 대한 ‘인식 전환’, ‘이주민과 난민이 가지고 있는 소양을 이끌어주는 단계와 절차’, 난민의 ‘트라우마나 박해에 대한 공포 등 취약성을 극복의 중재자’로서 디아코니아의 역할이 이루어지면 이주난민의 수용이 높아지고, 국민의 인식 개선이 좋아지고, 이주난민이 구성원으로 정착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독일 디아코니아와 난민 수용의 연관성을 통해 어떻게 한국교회가 디아코니아의 책임을 높이면 이주난민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잘 정착 될 수 있다는 논리의 연계성을 구체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보완해 주면 좋을 뻔하였다.

총평을 하면 발표1과 발표2 모두 한국교회의 이주민 난민의 현실과 과제의 제시가 부족한 것은 현장성의 부족과 논리의 집중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발표1인 한국 정부의 이민정책에 치중하여 한국교회의 이주민선교의 과제의 제시가 평면적이다. 발표2는 디아코니아와 이주난민과 연계된 과제 제시가 부족하다. 독일의 디아코니아 사업과 규모 보다는 독일 교회의 이주난민 정책과 사업에 대한 사례 소개를 더 집중하였다면 한국교회의 이주난민 선교에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논찬 및 사역 소개

우리는 이민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튜 선교사 (수표교교회 국내 이주민 선교 담당)

한국으로 입국하는 무슬림 이민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슬림들은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많은 모스크를 세우고,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이슬람 센터, 할랄 음식을 제공하는 이슬람 상점과 레스토랑을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이민자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이민자들은 한국의 모든 지방에 그들의 공동체를 갖고 있으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표교교회가 후원하는 한국아랍교회는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아랍교회는 12년간의 한국 내 아랍 무슬림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아랍교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아랍교회는 무슬림계 기독교인의 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랍교회는 아랍 무슬림 출신의 개종자들을 회원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아랍교회는 아랍어 성경공부를 통해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랍어 성경 공부는 무슬림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아랍어 성경 공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시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랍어 성경 공부는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 그분의 속죄를 설명하는 10과로 구성됩니다. 아랍어 성경공부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아랍어 교회의 사역과 비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어로 번역되어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한국아랍교회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아랍교회는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3단계 한국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첫 수업은 초급반입니다. 두 번째 수업은 TOPIK1급입니다. 세 번째 클래스는 TOPIK2 수준입니다. 최근 2023년 1급 교과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교과서는 아랍 교사가 아랍 학생들을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아랍 작가가 국내 및 해외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최초의 한국어 책입니다. 아랍 이민자들이 한국어를 사랑하고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쉽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아랍교회에서는 무슬림 선교 훈련을 통해 한국 기독교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아랍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무슬림을 효과적으로 복음화할 수 있는 선교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랍교회 선교 훈련 과정은 12강으로 구성됩니다. 36시간 코스입니다. 신학교, 선교단체, 교회에서 가르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교 훈련 과정의 목적은 한국교회 전도자들이 이슬람교의 가

르침을 통해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국아랍교회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선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랍교회에서는 아랍어 수업을 통해 한국 기독교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한국 아랍교회에서는 한국 교회 교인들과 선교사들에게 아랍어 강좌를 72시간 제공합니다. 아랍어 교과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아랍어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의 아랍교회는 한국 기독교인과 한국교회에 이슬람 예방접종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아랍 교회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기독교인에게 영적 백신을 제공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여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아랍교회에서는 이슬람교 타파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이슬람 가르침의 위험성과 명목상의 무슬림이 언제라도 위험한 테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 세미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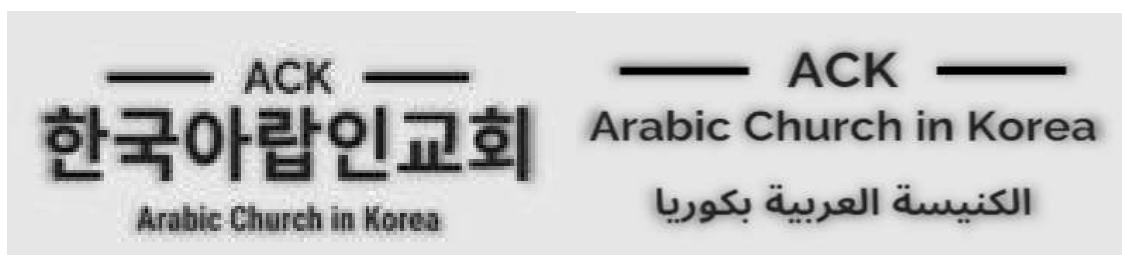
한국아랍교회는 국내외 무슬림 선교를 위해 모든 한국교회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아랍교회에는 한국 기독교인 모두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We are ready for immigr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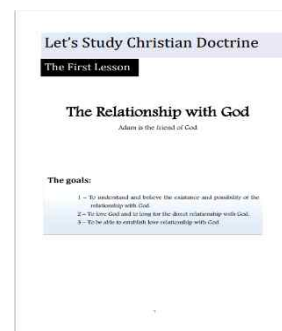
The number of Muslim immigrants to Korea is increasing rapidly. Korean Muslims are ready to welcome new immigrants through establishing many mosques to pray everywhere, Islamic centers to provide caring and education and Islamic shops and restaurants to provide them Halal food. Muslim immigrants have their own racial communities in every province in Korea and they are increa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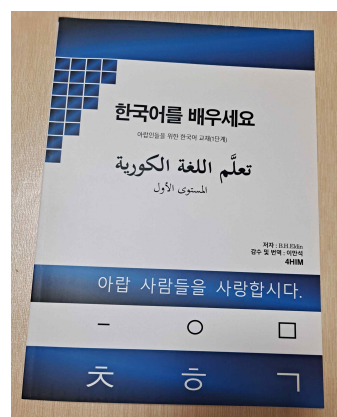
Arabic Church in Korea has vision to evangelize Arab Muslim immigrants and preach the gospel to Arab Muslim immigrants. Arabic Church in Korea was established in 2018 after 12 years of experience of ministry for Arab Muslims in Korea. Therefore, Arabic Church in Korea is ready to welcome Arab Muslim immigrants through different activities. Arabic Church in Korea is established to be the church of the Christian believers from Muslim background. Arabic church in Korea welcome and converts from Arab Muslim Background to be its m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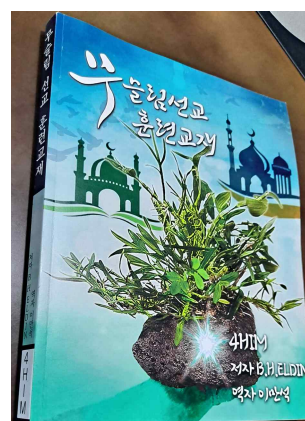
Arabic Church in Korea is ready to welcome Arab Muslim immigrants in its Arabic Bible Study. This Arabic Bible Study is made specially for Muslims. Arabic Bible Study focus on the core of the gospel which is that Jesus came and died on the cross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s and He resurrected again, Jesus is one 100% God and He is 100% human and God is Trinity. Arabic Bible Study consists of 10 lessons which explain Trinity, divinity of Jesus and His atonement. The Arabic Bible Study is translated to English and is being translated to Korean in order to help Korean Christian to understand the ministry and vision of Arabic Church in Korea



Arabic Church in Korea is ready to welcome Arab Muslim immigrants in its Korean language class. Arabic Church in Korea provides Arab Muslim immigrants 3 levels of Korean language class. The first class is the beginner class. The second class is TOPIK1 level. The third class is TPOIK2 level. Recently, the first level class textbook is published in 2023. This textbook is made by Arab teacher to Arab students. Therefore, it is the first Korean language book is made by Arab author to Arab people in Korea or overseas. It is made to teach Korean language in easy way to help Arab immigrant to love Korean language and learn it f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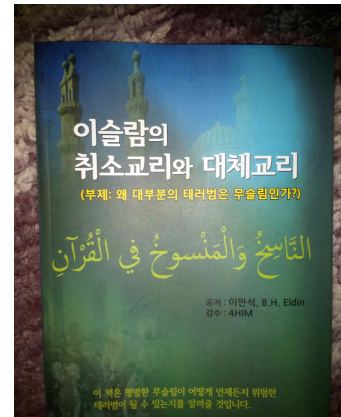
Arabic Church in Korea is ready to welcome Korean Christians in Mission class. Arabic church in Korea has mission training course for Korean Christian evangelists and missionaries to train them to evangelize Muslim effectively. Arabic Church in Korea mission training course consists of 12 lectures. It is 36 hours course. It is made to be taught in Christian seminaries, missionary organizations and churches. It is translated to Korean language. The goal of mission training course is to help Korean Christian evangelists to able to explain Trinity and Divinity of Jesus through Islamic teachings. Arabic church in Korea holds mission training online and offline.



Arabic Church in Korea is ready to welcome Korean Christians in Arabic language class. Arabic church in Korea provides Korean Christian evangelists and missionaries Arabic language course 72 hours. The Arabic language textbook is published. Arabic language class is online and offline class.



Arabic Church in Korea is ready to vaccinate Korean Christians and Korean Churches against Islam. Arabic church in Korea provides Korean Christian a spiritual vaccine to protect the Christian from the negative effects of the Muslim immigrants. Many Christians left the church in the entire world they believed in Islam. In order to protect Korean Christians, Arabic Church in Korea holds seminar about the abrogation of is Islam. The purpose of this seminar is to show the dangerous of Islamic teaching and how nominal Muslim can be dangerous terror at any time. This seminar can be hold online and offline.



Arabic church in Korea is ready to cooperate with all Korean Churches for the mission for Muslim in Korea and overseas. In the same time, Arabic Church in Korea needs the prayers and support of all Korean Christians. We pray to receive the power and wisdom of Holy Spirit to be able to do God's blessed plan every day. Amen.